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16. 능동태 - 현재형을 사용하라

김완일 목사 / 1994/ 페이지수: 2

우리말은 술어 중심의 언어이다. 말을 통하여 개념이나 사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말은 동사가 문장안에서 맨 나중에 위치함으로 말하는 사람의 뜻을 동사가 끝날때까지는 알 수 없다. 이와같이 우리말의 동사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뜻을 결정지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사는 「-하다」와 같은 능동태 동사와 「-되다」는 수동태 동사가 있다. 일상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성경공부에서도 능동태 동사를 현재형으로 사용할 때 말은 더욱 생동감과 힘을 지니게 된다. 즉 현재시제를 능동형으로 사용할 때 메시지의 전달효과는 한층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시제로써 말한다는 것은 메시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현재시제가 성경의 역사적인 내용을 거부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경공부는 충실한 본문이해와 본문의 체시에 의존한다. 현재시제를 사용하라는 것은 성경공부의 문법에 관하여가 아니다. 이것은 인도자가 본문을 해석하고 그것을 현재적 상황에서 조명하고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현재중심의 사고를 가지며 미래 지향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 우리말은 3차원적 시간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즉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없고, 현재도 엄밀하게 따지면 과거와 미래로 갈라지고 남는 것은 부피가 없는 순간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현재중심의 사고가 강하고, 그 사고가 우리말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단지 「고대의 이야기」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들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경험의 분명한 모형을 나타내주고 있다. 성경속의 사건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고취시키는 정보를 나타내고 책임을 유발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공부는 보는 시각 이상의 것이 있다. 이러한 밀착된 감동 때문에 참석자들은 메시지 속에 젖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시제로 말할 때 성경공부에 역동성이 부여되고 살아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메시지가 전달될 때 적용 가능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석자의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시제가 성경공부현장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면, 적용가능한 표현과 전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확인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현재중심의 사고가 강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적용가능한 현재시제로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노력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과 함께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능동태 동사는 인도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힘을 주는 말이며, 살아있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말이나 문장이든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은 동사이다.

* 출처 : 은누리신문